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Significance Test of Mediating Effects by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김 경 화(Kyung Hwa Kim), 조 효 숙(Hyo Sook Cho), 김 연 하(Yeon Ha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03 couples with children of ages 3, 4, and 5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in the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have meaningful correlations with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lso,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has meaningful cor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of mothers. Second,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have direct/indirect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two variables. It is significant that these results give the basic research data for developing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that can lower parenting stress of mothers by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주제어(Key Words) : 유아기 자녀(Early childhood children),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아버지의 양육참여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이 부부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에 맞추어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 중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E. Yoo, 2015). 원가족 경험이란,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J. Kim, 2010). 원가족 경험에 따른 아버지 연구는 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H. Jo & S. Park, 2013; J. Kim, 2010) 을 살펴보고 있으며,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 Corresponding Author : Yeon Ha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584, E-mail: yeonhakim@khu.ac.kr

과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경우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고,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및 양육참여도, 그리고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써, R.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됨의 요구에 대한 자기회피적인 심리학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기능 및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기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 자녀 관련변인, 환경변인(가족 소득 등),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 등이 있다. 이 중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핵가족 중심인 현대사회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이기(J. Ahn, 20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원 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K. Floyd and M. Morman(2000)은 아버지의 원가족 부(父)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하였다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원가족 부(父)에게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였던 아들은 향후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J. Pleck(1997)은 보상적 아버지 역할, 즉 원가족 부(父)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해 양육태도에 불만이 많았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가족 경험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연구는 양육태도에 비하여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원가족 양육경험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K. Park & H. Moon, 2015)도 있으나, 이는 혼전인 성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의 실제 양육참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H. Ra(2012)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의 심리적 요인인 원가족 경험과 관련성을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기저로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면 자녀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원 가족 경험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가치가 입증된다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방안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단일차원의 변인 간 양상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적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관계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가 경험한 개인의 발달사(developmental history)로 정의된다. 즉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겪은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의 경험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J. Kim, 2010). 이와 관련하여 원가족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현재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 Guzzo, 2011; M. Morman & K. Floyd, 2006). 실제로 R. Forste, J. Bartkowski, and R. Jackson(2009)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친부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을 경우, 훗날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동기 때 원가족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한 남자는 향후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았다(J. Belsky, R. Conger, & D. Capaldi, 2009). 친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지닌 남자는 훗날 자신의 자녀 양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J. Belsky, 1984).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버지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

육경험의 세대 간 전이는 원가족 부모와 자녀의 성(性)에 따라 차이를 보인 연구들(M. Chung, Y. Chun, & J. Kim, 2004; J. Lee, S. Song, & H. Doh, 2011)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원가족 부모의 성(性)에 따른 양육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현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E. Yoo,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가족 부모의 성(性)차에 따른 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성인이 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들이 중요하며, 그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 Jo, 200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가사협력을 넘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과 사고를 포함한다(E. Yoo, 201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 Kim, 2012; J. Lee, 2003; S. Lee & H. Min, 2007). H. Yun(2010)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기 자녀의 성역할, 사회, 정서,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 양육 참여는 다자녀 가구 어머니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2012; J. Kim, 2014). J. Lee(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 Kim & H. Kim, 2013; J. Kim, S. Yang, & J. Sung, 2013; S. Seo & D. Lee, 2014).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개별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버지 원가족 모(母)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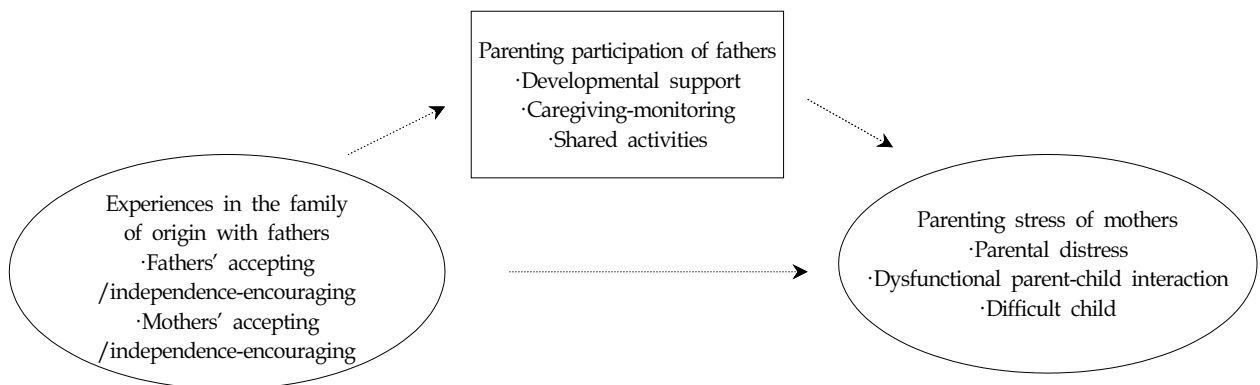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research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7개 어린이집의 만 3, 4, 5세 자녀를 둔 부모 203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 특성의 경우, 연령은 만 4세가 45.3%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아 115명(56.7%), 여아 88명(43.3%)이며, 자녀수는 2명이 42.9%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특성의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39세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전체 39.9%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생산직 및 서비스직의 종사자가 36.9%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특성의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39세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가 58.1%이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 이상~400만원 이하가 전체 38.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S.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FPS)를 J. Jeun(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부모의 수용 대 거부, 독립성조

장 대 과잉보호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 대 거부 9문항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수용하고 애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녀를 거부하였는지를 말한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는 12문항으로 부모가 자녀를 독립성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킨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했는지를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더 많이 수용되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부의 수용 대 거부요인은 .86, 부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은 .85, 모의 수용 대 거부요인은 .89, 모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은 .81이다.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Y. Lee, J. Lee, and B. Cho(1999)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에서 양육참여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참여도는 총 26문항으로 발달적지지,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적지지는 11문항으로 자녀의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을 지지하는 것이고, 돌보기 및 지도는 9문항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6문항으로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칙도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직접 체크하지만, 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 Variables | n (%) | Variables | n (%) | | |
|--------------------|-------------------|---------------------------------|-----------------------------|---------------------------------|------------|
| Child's age | 3 year old | 49 (4.1) | Father's job type | Blue collar, service | 75 (36.9) |
| | 4 year old | 92 (45.3) | | Office, management | 52 (25.6) |
| | 5 year old | 62 (30.5) | | Sales | 32 (16.3) |
| Child's gender | Boy | 115 (56.7) | Professions | 23 (11.3) | |
| | Girl | 88 (43.3) | Etc | 21 (10.3) | |
| Child's number | 1 | 48 (23.6) | Mother's age | 29 below | 8 (3.9) |
| | 2 | 87 (42.9) | | 30 - 34 | 47 (23.2) |
| | Above 3 | 42 (20.7) | | 35 - 39 | 88 (43.3) |
| | Only | 26 (12.8) | | 40 - 44 | 49 (24.1) |
| Father's age | 30 - 34 | 29 (14.3) | 45 and over | 11 (5.4) | |
| | 35 - 39 | 83 (40.9) | Mother's education | Below High school | 3 (1.5) |
| | 40 - 44 | 66 (32.5) | | High school | 78 (38.4) |
| | 45 and over | 25 (12.3) | | College | 65 (32) |
| | | University | | 54 (26.6) | |
| Father's education | Below High school | 7 (3.4) | Graduate school | 3 (1.5) | |
| | High school | 81 (39.9) | Mother's employment status | Working | 118 (58.1) |
| | College | 45 (22.2) | | Non-working | 85 (41.9) |
| | University | 57 (28.1) | Family monthly income (won) | Less than 2,000,000 | 24 (11.8) |
| Graduate school | 13 (6.4) | 2,010,000 - Less than 3,000,000 | | 59 (29.1) | |
| | | | | 3,010,000 - Less than 4,000,000 | 79 (38.9) |
| | | | 4,010,000 and over | 41 (20.2) | |

연구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체크하는 타인보고식 질문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발달적 지지 .92, 돌보기 및 지도 .85, 함께하는 활동 .80이다.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R.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am)를 K. Chung, K. Lee, J. Park, and H. Kim(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은 12문항으로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적응상의 문제이며,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12문항으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은 12문항으로 다루기 어려운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부모의 고통요인은 .81, 역기능적 상호작용요인은 .84, 까다로운 아동 요인은 .86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7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를 둔 부모 203쌍이다. 임의 선택한 12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렸으며, 7곳의 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후 연구자가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담당교사가 유아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유아를 통해 본 설문에 동의한 부모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04일까지 4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310부를 배부하였으며 220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를 제외한 총 203부(65.5%)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산출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 Baron and 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유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 Sobel(1982)검증을 실시하였다. M. Sobel(1982)이 고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의하면, Sobel test는 Z검증으로 가능하다. Z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는 0.0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 Z검증 공식은 $Z = a \times b / \sqrt{(a^2 s_b^2 + b^2 s_a^2)}$ 이고, 여기서 a는 독립변인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참여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다. b는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참여와 종속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며, Sa는 a의 표준오차이며, Sb는 b의 표준오차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R. Baron and D.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각각 독립적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하위요인 별로 개별적으로 모두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방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의미 있는 매개효과와 Sobel test 결과만 제시하고 소개하기로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점수 분포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아버지 양육참여도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Variables | M (SD) | Variables | M (SD) | | |
|------------------------------------|-----------------------|--------------|-----------------------------|--|--------------|
|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 Developmental support | 29.20(7.07) |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Parental distress | 30.50(6.66) |
| | Caregiving-monitoring | 24.87(4.86) |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 23.28(5.80) |
| | Shared activities | 18.58(3.21) | | Difficult child | 27.20(6.98) |
| | Total | 72.65(13.77) | | Total | 80.98(14.69) |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 | |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 | |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 |
|--|--|------------------------------------|-----------------------|-------------------|-----------------------------|--|-----------------|
| | | Developmental support | Caregiving-monitoring | Shared activities | Parental distress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 Difficult child |
| Parenting stress of mothers | Parental distress | -.14* | -.12 | -.07 | | | |
|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 -.44*** | -.38*** | -.21** | | | |
| | Difficult child | -.22** | -.17* | -.14* | | | |
|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 fathers' accepting | .24** | .15* | .20** | .03 | -.12 | -.13 |
|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 .47** | .37*** | .22** | -.03 | -.33*** | -.17* |
| | mothers' accepting | .39*** | .31*** | .23** | .08 | -.15* | -.10 |
| | mo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 .48*** | .35*** | .15* | -.07 | -.39*** | -.15* |

* $p < .05$, ** $p < .01$, *** $p < .001$

는 발달적 지지가 29.20($SD=7.07$), 돌보기 및 지도가 24.87($SD=4.86$), 함께하는 활동이 18.58($SD=3.21$)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72.65($SD=13.7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고통이 30.50($SD=6.66$),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23.28($SD=5.80$), 까다로운 아동이 27.20($SD=6.98$)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80.98($SD=14.69$)로 나타났다.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매개효과를 밝히기 전, 세 변인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양육참여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고통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발달적 지지와 ($r=-.14$, $p < .05$)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계수 $-.14 \sim -.44$ 범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다루기 힘든 자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원가족 경험의 모든 하위요인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계수 $.15 \sim .48$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으로부터 수용되고 독립심이 조장되었던 경험이 있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모의 수용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r=-.15$,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모(母)로부터 수용되었을수록 어머니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 요인 중 부와 모의 독립성 조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과 상관계수 $-.15 \sim -.39$ 범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부와 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었던 경험이 있을수록 아내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자녀로 인하여 생기는 스트레스를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버지 원가족 중 부(父)와의 경험과 어머니(아내)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VIF 값은 $1.16 \sim 2.89$ 으로 10미만이었으며, Dubin Watson 값은 2.15 Tolerance 값은 $.36 \sim .67$ 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父)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부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47$,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3$,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wives

| Step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R^2 | F | Sobel Z | |
|------|---|--|------------------------------|-----|-------------------|--------------------|
| 1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Developmental support ²⁾ | .47*** | .22 | 57.97*** | |
| 2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33*** | .11 | 23.92*** | -4.26** |
| 3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Developmental support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15 [*] -.37*** | .21 | 26.92*** | |
| 1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Developmental support ²⁾ | .47*** | .22 | 57.97*** | |
| 2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Difficult child ³⁾ | -.18 [*] | .03 | 6.2 ^{0*} | -2.16 [*] |
| 3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Developmental support ²⁾ | Difficult child ³⁾ | -.09 -.17 [*] | .05 | 5.68** | |
| 1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Caregiving-monitoring ²⁾ | .37*** | .19 | 32.20*** | |
| 2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33*** | .11 | 23.92*** | -3.42** |
| 3 |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¹⁾ Caregiving-monitoring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22** -.29*** | .18 | 22.20*** | |

* $p < .05$, ** $p < .01$, *** $p < .001$

¹⁾sub-factors of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²⁾sub-factors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³⁾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of wives

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37,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3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15).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4.26(p < .001)$ 로 나타났다($a=.489$, $Sa=.064$, $b=-.303$, $Sb=.059$).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47,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8,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17, $p < .05$), 부의 독립성 조장이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16(p < .05)$ 로 나타났다($a=.489$, $Sa=.064$, $b=-.173$, $Sb=.077$).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

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까다로운 아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는 높아지고, 발달적 지지를 통하여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부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자녀 돌보기 및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7,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3,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녀 돌보기 및 지도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29,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3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22). 따라서 돌보기 및 지도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42(p < .001)$ 로 나타났다($a=.264$, $Sa=.047$, $b=-.353$,

Sb=.082).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함을 알 수 있다.

3.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모(母)와의 경험과 어머니(아내)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성선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VIF 값은 1.39~3.15으로 10미만이었으며, Dubin Watson 값은 2.20 Tolerance 값은 .31~.71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중 모(母)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모의 수용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9, $p < .001$), 모의 수용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5,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44, p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mo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wives

| Step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 R ² | F | Sobel Z |
|------|--|--|--------------------|----------------|----------|---------|
| 1 | mothers' accepting ¹⁾ | Developmental support ²⁾ | .39*** | .15 | 34.27*** | |
| 2 | Growth support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15* | .02 | 4.77* | -4.26** |
| 3 | mothers' accepting ¹⁾ Developmental support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01 -.44*** | .18 | 21.80*** | |
| 1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Developmental support ²⁾ | .48*** | .23 | 60.04*** | |
| 2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39*** | .15 | 34.91*** | -4.02** |
| 3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Developmental support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23** -.33*** | .23 | 30.43*** | |
| 1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Developmental support ²⁾ | .48*** | .23 | 60.04*** | |
| 2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Difficult child ³⁾ | -.15* | .02 | 4.69* | -2.29* |
| 3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Developmental support ²⁾ | Difficult child ³⁾ | -.06 -.19* | .05 | 5.30** | |
| 1 | mothers' accepting ¹⁾ | Caregiving-monitoring ²⁾ | .31*** | .10 | 20.72*** | |
| 2 | mothers' accepting ¹⁾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15* | .02 | 4.77* | -3.34** |
| 3 | mothers' accepting ¹⁾ Caregiving-monitoring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05 -.34*** | .13 | 14.59*** | |
| 1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Caregiving-monitoring ²⁾ | .35*** | .12 | 27.68*** | |
| 2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39*** | .15 | 34.91*** | -3.23** |
| 3 |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¹⁾ Caregiving-monitoring ²⁾ |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³⁾ | -.29*** -.28*** | .22 | 27.34*** | |

* $p < .05$, ** $p < .01$, *** $p < .001$

¹⁾sub-factors of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²⁾sub-factors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³⁾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of wives

< .001), 모의 수용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26(p < .001)$ 로 나타났다($a=.44$, $Sa=.075$, $b=-.371$, $Sb=.06$).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수용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모로부터 수용되었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는 높아지고, 발달적 지지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둘째, 모의 독립성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48$,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9$,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33$,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39$)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23$).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02(p < .001)$ 로 나타났다($a=.503$, $Sa=.065$, $b=-.273$, $Sb=.05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모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48$,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5$,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19$, $p < .05$), 모의 독립성 조장이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29(p < .05)$ 로 나타났다($a=.503$, $Sa=.065$, $b=-.187$, $Sb=.07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까다로운 아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모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력은 높아지게 되고, 발달적 지지를 통하여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넷째, 모의 수용이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1$, $p < .001$), 모

의 수용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5$,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34$, $p < .001$), 모의 수용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34(p < .001)$ 로 나타났다($a=.248$, $Sa=.054$, $b=-.419$, $Sb=.086$).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모의 수용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모로부터 수용되었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지의 돌보기 및 지도력은 높아지게 되고, 돌보기 및 지도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다섯째, 모의 독립성조장이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35$,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9$,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28$,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39$)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29$).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23(p < .001)$ 로 나타났다($a=.251$, $Sa=.048$, $b=-.319$, $Sb=.0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의 부(父)와 모(母)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했수록, 아버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게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한다(Z. Chen & H. Kaplan, 2001; H. Jo & S. Park, 2013)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G. Kim and H. Kim(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모의 독립성 조장과 모의 수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아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았을수록, 배우자-자녀간의 역기능적 소통과 까다로운 자녀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가족 경험 중 부의 수용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고통은 독립-종속 변수 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2.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父)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의 독립성 조장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발달적지지, 자녀 돌보기·지도)가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도록 양육을 받거나 관계를 맺었을 경우,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또는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발달적 지지나 돌보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독립성 조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밝힌 연구(J. Kim, 2012)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자녀 돌보기를 통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G. Kim, 2013; S. Kim, H. Choi, K. Jeong, & Y. Lee, 2012)는 연구들과 조합해 볼 때, 원가족 부(父)에게 독립성을 지지받았던 아버지의 양육 경험은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행동과, 다루기 힘든 자녀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그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독립성 조장 경험이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변인 간에 양육참여로 설명되지 않는 직접적 인과 관계가 나타난 원인으로 다른 매개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H. Jo(2012)은 아버지 원가족의 독립성 조장 경험과 아버지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상황적 변인들에 대한 매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갈등이 높아지고(Y. Jeon & M. Jeong, 2003), 부부갈등이 높으면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지각하며, 자녀와 강압적 상호작용을 한다(C. Buehler, G. Lange, & K. Franck,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아버지 원가족의 양육경험과 함께 두 요인 사이에 존재 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지받을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원가족 부(父)로부터의 수용적 경험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직접 효과에 대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바뀌거나, 부모가 남녀 자녀에게 똑같은 양육행동을 취하였다더라도 자녀 자신의 성(性)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을 다르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격려하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등 자녀의 성(性)에 따른 차별적인 양육신념을 지닌다(S. Kim, 2009; H. Lee, 2010).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원가족 부(父)의 양육방식을 더 수용적으로 지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M. Chung, S. Kang, & J.

Choi,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재 규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향후 아버지 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버지-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 조장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아버지에 의하여 독립성이 잘 형성되도록 양육을 받았다면, 향후 결혼하여 양육참여도가 증가하며,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실증적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버지 원가족 중 모(母)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모의 수용 및 독립성 조장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의 모(母)로부터 수용되고 독립성이 형성되었던 양육을 경험하거나 관계를 맺었을 경우, 자녀와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스트레스를 양육 낮추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특히 발달적 지지와 자녀 돌보기 및 지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원가족 모(母)로부터 수용되었던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애정적 지지를 보이고, 자녀를 돌보는 수준도 높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S. Cho & H. Chung, 2008; S. Jang, H. Chung, & J. Lee, 2011; J. Kim & Y. Kim, 2011)과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돌보는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배우자-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G. Kim & H. Kim, 2013)와 조합해 볼 때, 아버지 원가족 모(母)의 독립성 조장과 수용경험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원가족 부(父)와의 관계와는 달리, 아버지는 원가족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성 조장뿐만 아니라 수용된 양육경험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원가족 모(母)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남자는 훗날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연구(J. Kim & Y. Kim, 2011)와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양육이라는 행위자체가 수용과 포용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수용 및 포용과 관련해서는 어머니를 역할모델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엄부자모의 가정환경 내에서 자라난 아버지들이,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방식을 학습하고 모델링하여, 자신의 자녀 양육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모(母)로부터의 수용된 양육 경험은 독립성이 조장된 양육경험과 함께 훗날 성인이 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적극성을 예고해 주는 지표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 중 발달적 지지와 돌보기·지도와는 다르게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아버지 원가족 부(父)와 모(母)의 양육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원가족 부모의 독립성조장 및 수용적 경험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하위요인과 달리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한다. 공원·동물원 등에 데리고 간다 등 외부활동 참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 J. Lee(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요인 중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 아버지의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J. Kim, 2005)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양상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요인 중 가사참여나 발달적 지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특히 더 관련이 있거나, 어머니들은 외부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간보다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는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성을, 모(母)로부터는 독립성과 함께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였다면 자신의 가정 내에서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며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및 양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버지 노릇의 세대 간 전이 및 그 영향력에 대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원가족과의 부정적 관계 또는 양가감정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모 교육, 부부 상담 등의 현장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원가족의 비수용을 경험했던 집단이 부모 교육프로그램으로 원가족

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 올바른 부모역할을 구축하였다(H. Lee, D. Choi, & E. Bae, 2009). 그리고 원가족과 원만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했을 경우, 오히려 좋은 아버지노릇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R. Forste et al.,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해결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결과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 원가족 부모의 성(性)과 관계없이 원 부모 모두에게서 받은 각기 다른 양육경험이 성인이 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까다롭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가족 부와 모 중 어느 한쪽에서만 자극을 받은 자녀에 비하여, 양 부모로부터 다른 종류의 자극을 받은 자녀가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L. Mekee & M. O'brien, 1982, as cited in E. Yoo, 2015)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인은 원가족 부(父)와 모(母) 모두와의 양육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개효과 역할을 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와 자녀 돌보기 및 지도에 대한 가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과거경험이므로 아버지가 바꿀 수 없지만, 현재 성인이 된 아버지의 노력여하에 따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자신의 양육참여 수준을 스스로 자각하고, 발달적지지 및 자녀 돌보기 등을 통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가 지닌 학문적 의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인들의 총점만을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규명하였다. 나아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을 부(父)와 모(母)로 나누어 살펴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원가족 부와 모로부터 독립성을 허락받고 수용되었던 경험을 지닌 남아가 미래에 아버지가 되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일종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양육의 세대 간 선순환 구조를 밝히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

의 양육행동 관계와 같은 단일차원의 양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원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달리 아버지 원가족 경험 및 양육참여도,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3세대에 걸친 관련성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역동적인 가족관계를 보다 새로운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데 학문적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참여 촉진을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교육 자료에 쉽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버지의 아동기 시절 원가족에게 받았던 양육경험은 자신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지닌 아버지들에게 교육을 통한 원가족 경험의 재인식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본인이 응답한다면 아버지의 주관적 지각이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적 양육참여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답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에 한계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아닌 배우자가 측정하게 하였다. 물론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평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자기 보고식 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원가족과의 경험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루어졌기에, 그 기억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미화 되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회고식 설문지 이외에 원가족 부모세대에게도 자녀와의 경험을 함께 조사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아버지를 인터뷰 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관계에 대하여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들(예를 들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요인, 가정의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대상에 참여하였던 기관은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표집 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확보해 보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nn, J. J. (2011).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year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5*(1), 127-15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Conger, R. & Capaldi, D. (200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01-1204
- Buehler, C., Lange, G., & Franck, K. L. (2007). Adolesc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mari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78*(3), 775-789.
- Chen, Z.,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ho, S. H., & Chung, H. J. (2008).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nuclear famil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5), 873-889.
- Choi, J. H. (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or mothers having more than thre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K. M., Lee, K. S., Park, J. A., & Kim, H. J. (2008).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K-PS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Chung, M. J., Chun, Y. J., & Kim, J. Y. (2004).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2), 133-150.
- Chung, M. R., Kang, S. K., & Choi, J. H. (2014).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role expect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245-268.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Floyd, K., & Morman, M. T. (2000). Affection received from fathers as a predictor of men's affection with their own sons: Test of the modeling and compensation hypotheses. *Communication Monographs, 67*(4), 347-361.
- Forste, R., Bartkowski, J., & Jackson, R. (2009). Just be there for them: Perceptions of fathering among single, low-income men. *Fathering, 71*(1), 49-69.
- Guzzo, K. (2011). New fathers' experiences with their own fathers and attitudes toward fathering. *Fathering, 9*(3), 268-290.
- Jang, S. W., Chung, H. J., & Lee, J. Y. (2011).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93-111.
- Jeon, Y. J., & Jeong, M. J. (2003). Effects of three-generation family experiences and coping behaviors of Korean children on their behavior problems. *Th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39-158.
- Jeun, H. J. (1997). *The effect of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rear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 H. Y. (2012). *The role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dicting father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 H. Y., & Park, S. Y. (2013). The role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dicting father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3), 59-74.

- Jo, S. J. (2003). *A study on paternal attitude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of Education, Gyeonggi, Korea.
- Kim, G. H. (2013). *Preschooler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preschooler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G. H., & Kim, H.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5 year-old preschooler parent's social economic status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4), 111-129.
- Kim,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Yang, S. Y., & Sung, J. H. (2013).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87-102.
- Kim, J. H. (2014). *The effect of employment on mothers' child-rearing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J. (2010). *Effects of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hood experiences of the fathering pract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J. J., & Kim, Y. M. (2011). Effects of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hood experiences on the fathering practic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113-129.
- Kim, J. W.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father involvement,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R., Choi, H. J., Jeong, K. H., & Lee, Y. L. (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551-575.
- Kim, W.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their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13-324.
- Kim, Y. K. (2002). *A study on father's role perceptions and fathering behaviors in child 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Lee, H. J., Choi, D. K., & Bae, E. S. (2009). Effec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solution of residential care adolescents' anger toward biological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27-48.
- Lee, H. S. (2010). *Relation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and self-control according to age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J. H. (2011).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and father's participation on parenting on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yeonggi, Korea.
- Lee, J. M., Song, S. M., & Doh, H. S. (201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3), 85-97.
- Lee, J. S. (2003). Childrearing involvement,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growth as a parent: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97-106.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20.
- Lee, S. M., & Min, H.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2), 219-225.
- Lee, Y. H., Lee, J. S., & Cho, B. H. (1999). Development of the generative fathering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2), 79-89.
- Meeker, L., & O'brien, M. (1982). *The Father Figure*. London and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Morman, M., & Floyd, K. (2006). Good fathering: Father and perceptions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father. *Fathering, 4*(2), 113-126.
- Park, K. S., & Moon, H. J. (2015). The effects of prospective parents' gender role attitudes, parentification and parents' experiences in their family-of-origin on recognition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25-46.

- Pleck, J. H. (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66-103).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a, H. M. (201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arenting involvement of fa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Seo, S. W., & Lee, D. K. (201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a child'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57-17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Yoo, E. J. (2015). *The relations among fathers' childhood experience, parenting participation and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father an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H. K. (2010). *Effects of the father's emotional empathy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y 14. 2015

Revised: November 25. 2015

Accepted: November 30. 2015